

# 산업 · 주거 · 균형발전 · 디지털 혁신 나선다

## 전북개발공사, 산업 경쟁력 강화 · 도민 삶의 질 향상 중점 사업계획 발표

전북개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스마트 산업도시 조성 및 친환경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디지털 경영 혁신을 핵심 축으로 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공사는 익산과 완주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수소와 푸드테크 기반 신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주 산업단지는 2026년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익산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확대와 고창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에너지사업 다각화에도 나선다.

주거 분야에서는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고창 덕산지구 준공을 비롯해 진안 월랑지구와 정수 노하지구 개발이 추진되며, 공공분양 888세대와 공공임대 1,763세대 건립이 계획돼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는 '하이신나다 출생장려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청년층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반값주택'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강화된다. 공사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발굴을 통해 도내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는 구역지정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발주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100%까지 확대하고, 지역자재 사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구매제도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경영 전반에서는 디지털 기반 혁신과 안전·투명 경영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 사업장에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처리율을 95% 이상으로 높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문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업무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산업과 주거, 지역경제, 행정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문건설업 보호 · 활성화 건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감사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18일 전주 소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합·전문건설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심화된 수주 불균형 문제와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도내 발주기관이 공사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전문공사에 대한 우선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도민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여민유지' 정신 아래 청렴한 도정을 위해 노력하는 감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건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명확히 반영해 전문공사로의 우선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적극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전문건설업이 직접 시공의 주체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사후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전문건설 활성화가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공사 구간 분할과 공종별 분리 발주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박희천 사무국장은 관련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의 업역 보호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발주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지사 직속 합의회 행정기구로 지난 2024년 1월 출범했다. '청렴 1등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예방과

현장 중심 감사로 도민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규정 해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 해법을 제시하는 건설팀 감사제도와 신속한 원가 심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개발공사, 신뢰 중심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전북개발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뢰 기반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개발공사는 19일 '친절을 넘어 신뢰로-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2026년 상반기 고객서비스(CS)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기존의 '친절' 중심 서비스를 넘어 '신뢰' 중심으로 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민원 응대 능력과 내부 협업 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민원 발생 구조를 분석하

고, '경청-공감-설명-대안 제시'로 이어지는 4단계 응대 프로세스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 다뤘다.

또한 내부 협업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 전달이 아닌 '서비스 전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책임 전가가 민원을 확대시키는 사례를 통해 조직 내 협업 방식 개선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각자 실천 가능한 '서비스 언어'를 설정하고 이를 민원 대응과 내부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상근 기자

##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내년도 사업계획 · 예산안 확정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9일 도회회의실에서 운영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 분야에서의 AI 활용 방안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법령·제도 정보 검색과 효과적인 질문 기법 등 실무 활용 중심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용 방안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법령·제도 정보 검색과 효과적인 질문 기법 등 실무 활용 중심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 19일 네이버페이와 'Npay 커넥트'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전북은행-네이버페이 '맞손'

### 소상공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 ·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19일 네이버페이와 'Npay 커넥트'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결제 환경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목적이 있다.

'Npay 커넥트'는 카드와 QR, NFC, 페이스사인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간편결제 기반 소비 환경 구축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속뱅크'에 'Npay 커넥트'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해 단말기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앱에서 신청과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해당 단말기는 전주사랑상품권(페이카드)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기능과 연계해 방문 고객이 리뷰 작성과 쿠폰 사용, 주문 등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고객 유입 확대와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과 네이버페이는 JB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도내 'Npay 커넥트' 가맹점에서 JB카드 결제할 경우 기존 혜택에 더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중소기업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연구장비 이용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연구·기술 인프라 활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를 중소기업이 보다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북테크노파크는 공공 연구장

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사를 둔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장비 이용료의 최대 8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정비정보제공시스템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시작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